

# COP28 실패 등 악재...7월 기념행사도 줄속 우려

## 국비 지원 없는 '초라한 10주년'

▶1면에서 계속

만성적인 적자와 운영비 부족은 시설 관리부실, 운영 중단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제관은 2020년 6월부터 활용되지 않고 있고, 박람회장의 상징적인 빅오는 지난해 12월이 마지막 쇼였다. 재단측은 다가오는 봄부터 다시 운영할 예정이지만, 운영비만 10~15억원에 달해 재계 여부는 미지수다.

엑스포 디지털 갤러리 또한 고장으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예산 부족으로 개·보수도 힘들어 5만1,000장의 LED 기판 구매·설치비 등 리뉴얼 사업비만 120억원에 이른다. 박람회재단측은 전남도와 여수시에 리뉴얼 타당성 용역을 위한 예산편성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미반영됐다.

기후환경관 등 임시 전시관이었던 4개 부재관은 엑스포가 끝난 직후인 2013년

모두 철거됐다. 그나마 한국관은 대규모 공연 및 행사 진행이 가능한 컨벤션센터 기능을 갖춰 상설 미술 전시관인 엑스포아트갤러리가 운영중이다.

박람회 정신 계승을 위한 여수프로젝트도 멈춰섰다. 여수프로젝트는 개발도상국의 해양환경문제 대처능력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국제기구 또는 사업 수혜 대상국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별, 국가별 해양 및 환경 관련 현안 과제 추진이 목적이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여수프로젝트 대표사업 중 하나인 여수국제아카데미는 2014년 처음 운영됐지만, 2019년 48명의 졸업생 배출이 전부다. 2019년부터 예산문제와 코로나 등 이유로 사업은 중단됐다. 아카데미 운영도 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 맡아야 하지만 국제적 네트워크 등이 부족해 부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맡기고 있다.

특히 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 실패는 가뜰스나 어려운 박람회장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됐다.

여수시는 2009년 국내 처음으로 정부에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건의하고, COP18 유치가 나섰다 고배를 마셨다. 이후 2018년 5월 지방선거 당시 권오봉 현 시장이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김영록 전남 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가 민선 7기 전남·경남 상생발전 정책협약을 통해 COP28 유치를 약속하며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정부는 2020년 7월 COP28 국내 유치를 공식 승인하며 힘을 보탤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10월 돌연 COP28을 아랍에미리트(UAE)에 양보하고, 5년 뒤인 2028년 33차 총회 유치가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메가이벤트를 통한 박람회장 활성화를 모색했던 지역사회 꿈도 다시

물거품됐다.

정부 지원이 끊기고 지자체의 무관심이 더해지면서 당장 오는 7월 예정인 10주년 기념행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10주년 기념행사는 '10년의 도약, 여수의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7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10주년 기념사업비는 지난해 6월 용역 결과 10억원(국비 5억원, 도비 2억원, 시비 3억원)이 도출됐지만, 정부 지원이 없어 7억원(도비 2억원, 시비 5억원)으로 줄었다. 국비 5억원은 해양수산부와 여수시가 협의 중이다. 사전행사, 홍보 등 3억여원이 들어가는 추가 기획 프로그램도 예산이 여의치 않아 기본 예산 7억원에 포함시킨 상태다.

그나마잡음이 적었던 해양기상과학관 건립은 지난 10년의 성과로 꼽힌다.

애초 여수시는 과학관 건립 부지를 박람회장 아쿠아리움 옆 5,000㎡를 정하고 매입 예산 70억원을 편성했지만, 여수시

의회는 국가시설물 건립에 부지를 제공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유보 결정을 내렸다. 정부도 부지 무상 제공에 난색을 표하면서 표류하던 과학관 건립은 2020년 기상청과 여수시가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승용이 트였다.

과학관은 연면적 5,450㎡,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266억원이 투입돼 여수시 공화동 일원에 오는 2023년 하반기 개관할 예정이다. 코로나와 날씨 탓에 1월 예정이었던 착공이 3월로 연기된 상태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양기상을 다루는 과학·기술·문화·산업의 융합공간이 될 전망이다.

또 2021년 9월 개원한 여수청소년해양교육원은 총 180억원(국비 98억원, 지방비 82억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됐다.

수영장, 스쿠버다이빙풀, 해양환경탐험관, 해양안전교육관, 해양레포츠체험관 등 해양교육 시설과 최대 152명의 숙

박이 가능한 생활관도 조성돼 있다. 이곳에서는 생존수영, 선박사고 훈련 등 해양안전교육과 프리다이빙, 스킨스쿠버, 카약 등 해양레저스포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박람회 유치 과정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여수세계박람회기념관은 박람회장 내 한국관 3층에 918㎡ 규모로 들어서 있다.

여수세계박람회재단 관계자는 "2013년 박람회장 재개장 이후 환경정비, 연계관광 확대 등 지속적인 노력을 했지만 매년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지방세 감면 조정에 힘쓰고 있지만, 국비 미지원과 코로나 탓에 재정난은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재단 자생력 확보를 위한 경상경비 절감, 지출 최소화, 수입 증대 노력 등 운영 내실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할 수 있는 내부 역량 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전남도, 귀농·귀어가구 '전국 1위'

통계청 발표 2020년 2,347가구 차별화된 지원정책 대응 등 성과

전남도는 그동안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전국 귀농·귀어가구 전국 1위 달성 등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고 18일 밝혔다.

2013년 통계청 귀농·귀촌인 통계발표 이래 최초로 2020년 2,347가구(3,108명)가 전남으로 귀농해 '귀농 1번지'로 확실한 자리매김했다.

또한 2021년 전국 귀농·귀촌 박람회에서 우수지자체 대상 3회 수상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귀농·귀촌 종합평가에서는 장성군이 전국 1위, 고흥군이 4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전남도가 2018년 광역단위 최초로 인구전담부서인 '인구정책과'를 신설해 전남도만의 차별화된 귀농·귀촌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등 발 빠른 대응 노력의 결과라는 분석이다.

2019년 전국 최초 도시민 대상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사업을 추진한 결과 1,591명의 참가자 중 252명이 전남으로 전입했다. 이를 농림축산식품부가 벤치마킹해 2021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2020년 2월에는 수도권 도시민 유치를 위해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에 '귀농·귀촌 종합지원 서울센터'를 설치, 단계별 귀농·귀촌 교육과 '귀농TIME'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예비 귀농·귀촌인의 많은 관심을 받고



남구 대형 공사장 긴급 점검 김병내 광주시 남구청장은 18일 관내 대형 건축공사장을 긴급 점검하고 관계자들에게 안전 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남구 제공

있었다. 이밖에도 2021년 전남 귀농·귀촌 온라인 박람회를 열어 도시민 방문객 3만 3,871명 대상 시군별 상담·교육 및 정보 제공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귀농·귀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펼치겠다"며 "이를 통해 예비 귀농·귀촌인이 성공적으로 전남에 정착하도록 함으로써 고품화, 인구 감소로 침체한 농어촌 지역에 활력 불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 광주시, 관광 특화 가이드 육성·지원

28일까지 단체·법인 모집

광주시는 관광업계 실무형 인재 육성을 위해 광주관광 특화 관광가이드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할 단체·법인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구축된 관내 관광 인프라를 스토리텔링해 광주관광의 큰 틀에 얹어 녹여낼 수 있는 전문 가이드가 필요하다라는 관광업계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추진됐다.

사업은 광주관광에 특화된 스토리텔링에 능한 전문 관광가이드의 육성을 통해 광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광주만의 독특함을 느낄 수 있도록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펀(Fun) 광주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광주 특화 관광가이드 육성·지원사업은 크게 2개로 나눠 진행된다.

사업 대상은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가 광주시 내에 소재하고 활동 중이며 최근 3년 이내 관광 관련(유사) 실적을 보유한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활성화 관련 사업 수행 단체·법인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선우 기자

## 도, 올해 2,351억 투입 지방도 정비

전남도가 지난해 국가계획에 역대 최대인 12조8,000억 원의 SOC 사업비를 반영한 가운데, 지방도로와의 체계적 연계를 통한 사통팔달 도로망을 구축,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지방도 사업에 최대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올해 총 2,351억 원을 들여 지방도 등 61곳 249km 구간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보다 무려 146% 증액한 규모다.

그동안 자체예산 부족으로 계획 및 추진 중인 지방도, 국가지원지방도 등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했으나, 올해 통 큰 예

산 확보로 사통팔달의 도로망 구축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국비가 보조되는 도계-장성 등 국가지원지방도 6곳은 500억 원을 들여 42km를 공사 중이다. 설계 중인 나주 급진-회선도암, 장성 동화-서삼 간 2곳 18km와 광주 하남-장성 삼계 간 광역도로 7.4km는 조속히 공사가 시작되도록 지속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다.

또한 전액 도비로 추진하는 지방도 정비사업에는 총 52곳에 1,800억 원을 투입한다. /길용현 기자

**전매 광고 안내**

전남매일 광고는 전화 및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모집·매매·부동산·광고·영양·분양·모임

· 광고국 062) 720-1016, 1017  
· 팩스 062) 720-1020  
· 이메일 jnm11000@hanmail.net

지치시대를 선도하는 종합시사주간지

**월간 전남매일**

지방자치 시대 동반자  
본권시대 선도자

투고를 기다립니다  
E-mail : jnreviews@daum.net

구독문의 062) 720-1006

**부실 채권 못 받은 돈 회수 전문**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입금내역, 각종 채권상당**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은행,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할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신입·경력사원  
영업팀 / 채권추심팀

지사오피스 상담

호남지사 010-2175-4731 / 062-417-4731  
**(주)제이엠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법인

질병관리청

봄바람, 코끝을 간질여도  
거리 두기를 합니다  
기다렸던 예방접종이 시작되어도  
마스크를 씹니다

#우린 #방역에진심인편

NAVER 드림꽃도매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축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정품 화환 75,000원 재사용 화환 50,000원

Tel. 062) 233-9961 Fax. 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